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26: 고린도전서 2부

테드 힐드브란트[고든 칼리지]

소개 [00:00-

이것은 테드 힐드브란드 박사와 그의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2부에 대한 26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고린도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를 찾아 선원의 도시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매춘, 부, 그리고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제 권한으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는 사도입니다. 그는 그들이 원한다면 독신을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결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좋지만 분명히 특정한 위기가 있었고 우리는 전쟁과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때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해, 전쟁,

박해는 결혼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로서의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가리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교회에서 여성이 말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큰 문제인데, 뉴잉글랜드와 뉴잉글랜드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 중 일부는 이런 문제에서 더 진보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다른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종류의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수준에서 참여하거나 이끌까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나요? 그들은 언제 여성 교황이 나올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살펴보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소 문제가 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4장 34절이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지만, 율법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14:34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오래된 책이에요. 그냥 버리세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것이 그때 찍은 스냅샷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든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자는 조용하고 온전히 복종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잠잠해야 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후에 이브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을 함께 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 흥미롭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요 수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종의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에 가는 교회가 다섯 개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교회로 가서 테네시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교회 중 하나는, 제가 말했듯이,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나 고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옛날, 남북 전쟁 이후의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자랄 때, 아마 25, 26, 27살이었을 겁니다. 교회에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가진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문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방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일 학교 교사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고, 전도서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였던 그 남자에게 정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도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그녀의 수업에 가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남자들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수업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위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수업에 가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테네시에 있었고, 아마 30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도서에 대한 훌륭한 수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다른 교회들은 이 문제로 분열되었습니다. 제 형은 그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침례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제 형은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항상 지팡이를 치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비꼬는 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형적인 침례교회의 진짜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왜 여성들이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치우기 시작했고 장로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볼 때, 실제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 원칙인가? 이것은 도덕적 원칙인가 아니면 문화적 원칙인가? 이것은 도덕적 원칙인가 아니면 문화적 원칙인가? 성경의 도덕적 원칙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종류의 것, 탐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도덕적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거의 구약이나 신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그러한 도덕적 원칙들, 심지어 바울조차도 여기에서 사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악덕을 나열합니다: 험담, 중상모략, 부도덕, 그러한 종류의 악덕들. 그는 악덕을 나열하고 또한 미덕을 나열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표준적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경은 문화적 문제라고 불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와 같이 문화적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구약성경에서는 랍스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랍스터도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방인이 랍스터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에 따라 바뀌는 그런 문화적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이 문화적인가 아니면 도덕적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문화적인가 아니면 도덕적인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루고 있는 특정 문화적 문제인가 아니면 도덕적 보편적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설명적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그가 그저 문제를 설명하고 있을 때 그것은 설명적입니다. 아니면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규범적입니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규범적입니까? 아니면 그는 단지 한 번뿐인 독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까요? 글썬요, 우선 이삭이 죽었습니다. 아브람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인가요? 글썬요,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특하게 지시하신 일회성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홍해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치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이 연못으로 가서 막대기로 치면 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여리고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고학적 발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독특한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것들은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일어났고 그것들은 보편화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규범적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서술적이어야지 모든 시간에 대한 도덕적 규범적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우리 문화에서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실제 규칙만 있다면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대 윤리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하세요. 물론 누군가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물론 누군가를 해칠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구절과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충돌합니까? 성경이 충돌합니까? 그리고 성경이 충돌한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신약에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음식을 좋다고 선언하셨다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코셔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은, 문제는 글루텐 프리나 비건, 그런 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코셔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캔에 적힌 K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약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본문 자체에서 묘사된 것과 충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성경 자체에 충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좋은 원칙인지 아닌지 궁금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7에서 요엘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이 - 사도행전 2는 오순절이고, 영이 내려오고 영이 누구에게 내려오나요? 누가 예언할까요? 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엘 2:28에서 구약성경의 요엘의 구절에 이어서,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아들과 딸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 아들과 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즉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것은 딸들을 나열하고,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 잠깐만요, 바울이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영이 내려올 때 요엘의 예언, 아들과 딸의 예언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구약에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적어도 여러분 중 일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에서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녀는 여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또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지자이고, 재판관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기혼 여성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꾸짖으셨나요? 아니요. 사사기 4장과 5장의 드보라는 영웅입니다.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영웅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녀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녀는 재판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부정적입니까? 사사기에서 많은 사사들이 부정적입니까? 삼손은 항상 엉뚱한 짓을 하고, 입다는 무엇을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모든 사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드보라는 정말 뛰어난 사사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의 눈에 옳은 일이지만, 드보라는 두드러집니다. 제 말은, 그녀는 뛰어납니다. 그녀는 여예언자입니다.

이제 바울 본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1:5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방금 말한 것을 반대합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머리를 욱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나요? 글쎄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하지만 그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설교입니다. 예언과 설교는 거의 같습니다. 제 말은, 단어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은 그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면한 것은 여자들이고, 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여성들이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잠깐만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한다고 말한다면, 바울 자신의 글에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7에서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유니우스를 언급하는 것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우스는 여성이고 그녀는 분명히 로마로 갈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편지를 썼고, 그는 이 여성 유니우스가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12명의 사도 중 한 명이라는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에 대해

말합니다. 제가 가르친 가이아 목사들은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가이아에 있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아프리카의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세 명이 "사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여러분은 아마 감독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보내진 사람. 사도는 단순히 보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Junius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십니까? 브리스길라는 아폴로가 성경에서 강력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는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갈대 바다를 건넌 때 미리암. 미리암은 실제로 성경의 일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바다의 노래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여성이 주요한 지위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마다 충돌이 발생합니다. 안테나를 올리고 이것이 처방이 아니라 설명적인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특정 교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문화적 문제일 뿐이며 보편화될 의도가 없는 것일까요? 보편화될 의도가 없지만 그들이 겪고 있던

특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볼 때마다, 이런 성경의 충돌을 볼 때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요압이 뭘 하나요? 구약성경에서 요압은 뭘 하나요? 그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야압은 아브넬을 살해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살인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원칙 측면에서는 큰 연속성이 있지만, 이러한 문화적 문제 중 일부에서는 문화가 가나안 시대의 셈족 문화에서 신바빌로니아 시대로 바뀌면서 서양 그리스 문화로 전환되고 로마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요 문화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이 문화적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문화적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문맥적 지표가 있습니까? 그가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표시가 텍스트에 있나요? 도덕적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는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보기 시작했고, 텍스트를 보면 알겠죠.

여기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조금 더 내려가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성령의 은사로 생각한다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 전체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정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은 예언하기를 간절히 하라. 내 형제들은 예언하기를 간절히 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구절보다 몇 구절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예의 바르게 행해야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두 사람에서 세 사람씩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고, 그는 우리가 그것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에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역자가 없다면 말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5절로 내려가 봅시다. “만일 그들이” 즉 여자들이요, 이것은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무엇을 묻고자 한다면, 그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왜 그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통제 불능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대해 떠들고 있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한 번에 하나씩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통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에 질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교회 예배는

너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예배를 좋아합니까?

거칠게? 많은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이 거칠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예의 바르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을 바탕으로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들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한다면, 질문으로 교회를 방해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에게 묻거나 교회 밖에서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한다면, 교회 예배 전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로 교회 예배 전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35절과 다른 곳에서, 본문에 이 특정 교회에 대한 특정 문제였다는 표시가 있고, 반드시 보편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패러디가 있었고, 교회에서 파괴적인 일이 일어났고, 바울은 교회 예배에 질서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 14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영적 은사와 여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14장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적절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본문에 그가 이 특정 교회에 대해 다루고 있는 특정 문제라는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파괴가 일어났고, 그는 그것을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식별합니다.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이 다양합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합니다. 일어나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여성들이 있어요.

잠언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저] 구약성경 교수가 엉터리였을 겁니다. 그는 잠언을 읽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잠언서에서 누가 왕에게 조언하고, 누가 왕에게 지혜를 주나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태만해서 구약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언 30장을 보면 누가 가르치고 지혜를 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무엘 왕의 말씀은 영감받은 말씀으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칩시다. 그의 어머니는 여자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꽤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오, 이 사람이 어머니인가요? "내 태의 아들이야,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아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을 망치는 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 레무엘 왕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왕이 와인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가 맥주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그녀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어머니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너는 왕이야. 취하지 마. 취하지 마. 이런 걸 마셔서는 안 돼. 이런 걸 마시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혜의 책에 있는 거야.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약 당신이 모든 여자가 침묵한다고 말한다면, 그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레무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건 성경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구체적일 거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구약성경에서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기본 원리 중 하나는 더 깊은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을 두르는 일을 할 때 더 깊은 원리는 뭐예요. 엑소더스에 나와 있고, 저는 뉴잉글랜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붕은 이렇습니다. 지붕 주위에 난간을 두르는 건 뭐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깊은 원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을 두르는 건 사람들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들이 여러분의 부지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책임을

쳐야 해요. 다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해요. 그러니 제가 수영장이나 그런 게 있다면, 수영장 주위에 울타리를 쳐야 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고양이가 들어와서 들어가고, 그러면 나올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얼어붙을 테니까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를 쳤죠. 그럼 더 깊은 원리는 무엇이고, 제가 이 여성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더 깊은 원리는 질서 있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방언으로 말하든 사람들이 질문하든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그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다르죠. 여러분 중에는 여성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성 목사가 없지만 여성 장로가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성 집사가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른 것들은 허용합니다. 저는 한 번은 여성이 일어나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성경을 설교할 수는 없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녀는 회중 앞에서 자신의 간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교회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모 수업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마 여러분이 제 말을 잘못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리더십 직책을 맡는 여성을 지지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누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 예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저 자신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는 저 자신과 논쟁할 것입니다. 저는 메노나이트 교회에 갈 것입니다. 인디애나 북부의 나파나라는 지역입니다. 고센 대학에 대해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고 그들이 저에게 와서 교회에서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선, 제가 교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저는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넥타이는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넥타이를 벗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NIV나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NIV 번역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하고 매우 강력한 킹 제임스 버전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작업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 버전에 얽매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언어로 자랐지만요. 제 아빠가 저에게 KJV를 암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고, 편안하지만, 뭐, 그럼 왜 NIV를 내려놓고 킹 제임스를 가지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스포츠 코트를 입고 그 교회에 가는 걸까요? 그게 그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남성 지배적인 경향이 강해요. 여성들은 노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앞에 나서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노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어나서 노래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한 가지를 생각하지만, 실제 교회에 가면 "여러분은 여기서 뭔가를 배워야 해요"라고 말하지 않는 엉뚱한 위선자 힐데브란트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성들이 있고, 여성을 지배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풀어줘야 해요.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온갖 오류가 있어요. 제게 주면 다섯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저에게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저는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리고 답은, 예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문화에

적응합니다. 그들이 힐데브란트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축제에 갈 것이고, 당신은 머리에 키파를 써야 합니다. 아니면 사실 그것은 감자튀김 상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머리에 거꾸로 얹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갈 때 감자튀김을 머리에 써야 할까요? 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타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적응하고 싶고,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성가시거나 불쾌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 머리에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머리에 놓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응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유대인 의식에 참석하려면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질문입니다. 제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저는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머리에 뭔가를 쓸 수는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제 모습을 바꾸고, 제가 설교하는 본문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에게도 같은 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팡이를 들고 테이블을 뒤집고 서서 오, 저는 이 모든 성경적 내용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동생에게 강의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파괴합니까? 아니면 지식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와, 하지만 그들은 이 점에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틀렸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당신은 방금 원칙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걸 용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여성 목사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성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성별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불쾌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성별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피부색보다 그 사람의 성격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성격과 피부색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르코와 저는 어제 실제로 약 2시간 동안 큰 말다툼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코 박사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제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는 형제와 같아요.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죠. 허구적인 친족 관계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다르코 박사는 분명 가나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가 북극 출신인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논쟁하고, 논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나를 존중한다고. 그가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틀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고, 그는 내가 이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에 들이대죠.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앞뒤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극화된 것 같습니다. 성별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 많이 양극화됩니다. 그러면 성별을 양극화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나는 결혼을 봅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을 보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봅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글썄요, 우리는 지금 해방되었고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당시 동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을 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 최근의 많은 결혼 생활이 솔직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말합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글썄요, 그들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아들의 아내는 너무 해방되어서 6년 후에 그녀는 그저 해방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만나, 찰리.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하지만 당신은 말한다, 잠깐만, 당신은 약속하지 않았어? 글썄,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이 그때의 내 약속이었기 때문이지만,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러므로 나는 계속 나아갈 때야. 사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려와서 말한다,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그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머물기 위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거야. 그녀는 그를 돌려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원하는 것을 말할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6년 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내 아들은 말한다, 세상에. 내 말은, 우리는 결혼한 지 6년 되었는데, 그녀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떠난다. 그녀가 함께 일했던 다른 남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뛰어든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 사람의 성격이 정말 중요한 거고, 결국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저는 또한 제 아들과 제 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결혼한 제 딸이요. 글썄요, 변호사와 결혼한 제 딸이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솔직히 서로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문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든 제 딸이든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려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논쟁에서 머리를 부딪히지만, 둘 다 매우 자애롭고 관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요. 제 딸은 셔츠 한 장만 입었을 때 등에 걸친 셔츠를 벗어줄 겁니다. 셔츠 두 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셔츠 하나 안에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 표현을 쓰는지 아시죠? 등에 걸친 셔츠. 하지만 어쨌든, 그녀가 아니, 제 딸을 만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상의를 벗어주었을 겁니다. 그녀의 남편 로버트, 아버지는 그가 6살이나 15살, 16살 때 떠났습니다. 로버트는 형제 자매를 키웠고 로버트는 어머니를 돌보았고 로버트는 16살에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연민을 알아요. 이 남자는 연민을 알아요? 네, 그는 정말 연민이 많은 사람이고 아직 변호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그는 정말 연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큰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 딸과 그는 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미친 짓을 많이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하는 일을 믿기 때문에 참아요. 정말 잘 맞는 거예요. 핵심적인 면에서 일종의 호환이죠. 그런데, 우리 둘 다 내성적이어서 정말 흥미로운 결혼

생활이 돼요. 우리 둘 다 그냥 앉아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둘 다 내성적이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수업 시간에만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함께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해 이야기했냐고 묻는 건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답은 우리가 뭐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괜찮아요. 이상하죠. 하지만,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의 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4장과 고린도서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은 성경의 사랑 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장벽을 넘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제가 현대 문화에서 걱정하는 건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랑이란 게 뭘니까? 제 목록에서
아래로 내려가야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바로 넘어가죠.
좋아요. 사실, 여기서는 그냥 뛰어들기보다는 순서대로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 하지만 저는 그 문제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 아니, 그냥 사랑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 정답은, 네, 룸메이트와 비슷해요. 네, 저는 룸메이트와

정말 잘 지내고, 그 사람과 6개월 동안 살다가, 야, 난 지저분한 사람을 원해 . 이런저런 걸. 그 사람은 제 물건을 빌려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뒤집어엮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예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이야기를 하죠.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 그 말은 상대방을 대신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는 건 모두가 "나한테 권리가 있어, 나한테 권리가 있어, 나한테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은 그게 다 나, 나, 나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나, 나, 나일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야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알아야 해요. 그것에 맞춰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 쪽에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이 다른 사람처럼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읽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은 내가 스스로를 위해 취하고 욕망할 때입니다. 소비적인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대를 거치며 아가페의 죽음을 목격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가진 정치적 담론을 보십시오.

사실 제가 어차피 할 정치적 연설을 하세요. 그러니 그러지 맙시다. 제 정치적 연설이고 이건 그냥 모의 연설일 뿐입니다. 제 정치에 대해 아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하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쪽으로 넘어가죠. 5장입니다. 여기서는 꽤 간단하기 때문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5장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사람이 나옵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사람. 하지만 교회는 괜찮게 여깁니다. 바울은 겁에 질려 5장 5절에서 이 사람을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사람을 넘겨주고, 그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세요. 사탄에게 넘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종파에서 그 남자를 데려다가 밤에 양초를 켜서 사탄에게 넘긴다는 건가요? 그러면 뱀파이어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요. 사탄에게 넘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사탄에게 넘긴다는 건 그 남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는 뜻이에요 .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고,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교회 징계에 쓰이는 절차는 뭐죠? 교회 징계 절차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누군가와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와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하는 건, 어제 우리가 논쟁했던 내용인데, 누군가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 협담을 해야 해요. 누군가와 문제가 있으면, 먼저 협담을 하세요. 좋아요. 협담은 중상모략이에요. 그럼, 좋아요, 테이프에서 빼죠. 네. 그건 냉소였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누군가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일대일로 직접 찾아가서 공개적으로가 아닌 두 사람 사이에서 비밀리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것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 그에게 직접 가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자면 안 됩니다. 아니면 당신이 세레 요한이라면, 야, 형의 아내와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왕이 당신의 머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일대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 증인을 확립하기 위해 두세 명과 함께 돌아갑니다. 두세 명과 함께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그가 말을 들었고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합니다. 그러니

두세 명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일대일로 가고, 두세 명과 함께 가세요. 그가 여전히 두세 명과 함께 듣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 전체에 그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그가 교회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가 온 교회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누군가의 죄를 그렇게 폭로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비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온 교회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가 온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탄의 영역에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장 29절입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문제이고,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몬교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믿습니다. 모르몬교는 지금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르몬교를 복음주의와 연관시키고 싶어합니다. 이런 종류의 모르몬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고린도전서 15:29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활이 없다면” 15장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럼 이게 뭐죠 ?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런데, 당신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주나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주는가?” 모르몬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약간의 추가 포인트나 무언가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몬 교회가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몬 교회는 정말 족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족보를 쫓아다녔고, 그런 다음 이 족보에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 그들이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몰몬교가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몰몬교는 최근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유대인 중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몰몬교는 죽은 유대인들을 위해 세례를 주어 그들을 기독교에 편입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 그룹, 몰몬교로 세례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평합니다. “당신은 제 삼촌 아비, 아비롬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가 뭔데요? 당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게 위험 신호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위험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몰몬교에서는 대리 세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지 않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 세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대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견해는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하세요,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이단 집단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이단 집단조차도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집단조차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가 “만약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죽은 자가 전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들을 위해.” 그는 우리를 위해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단 집단이 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조차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단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세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언어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은 죽었고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스테반 폴의 죽음을 통해 스테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스테반 폴의 죽음으로 인해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사이의 연결은 어떤 의미에서입니다.

다른 관점은 부활을 바라는 죽은 자를 기대하는 세례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 그리스도를 위해 부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이 NIV 성경에 대한 연구 노트를 읽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취하는 다양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관습을 거의 지나가면서 언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그의 주장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관습을 증명하지 않고, 그 구절은 아마도 모호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 구절은 아마도 모호하게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제시한 이 설명들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지입니다. 저는 몰몬교의 설명은 확실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들 모두에 허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NIV 주석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한 구절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대해 언급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만이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이것은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이 제가

이 중요한 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기에 모호한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29에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은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물몬교에 대한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네 가지 설명이 있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요 교리의 기반으로 삼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한 것들은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주요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복음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한 장을 다 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은 부활을 자세히 뒷받침합니다. 그런 다음 부활에 대해 다룹니다. 부활에 대한 한 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일,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까?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주요 일들,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 죄로부터의 의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성경 전체에서 언급됩니다. 이 구절은 이 한 곳에서 이야기되는 사소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구절의 사소한 가르침에 큰 교리를 기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한 번만 언급되었다면 말입니다. 한 벽돌 위에 온전한 구조를 짓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구절이 있고, 그 위에 이 온전한 구조를 짓고 지금은 7억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구절이고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요, 부차, 부차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춤추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 밖의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의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경의 주요 주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큰 것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전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것들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건너뛴 수 있을 정도인데, 누군가가 제가 무엇을 믿는지 한 번 물었고, 저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인가요? 사도 신조, 꽤 좋은 진술인가요? 성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인가요? 그러니 모호한 구절을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호한 구절을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고린도후서를 하죠. 잠깐 쉬죠. 계속해서 마무리하죠.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하고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을 모아보죠. 그런데 헛트 박사는 고린도서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자세히 다룹니다. 고린도후서는 흥미로울 것이고, 전체 과정을 차지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진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진술인 듯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만약 제가 신학을 조금만 바꾼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였을까요? 율법 전체와 선지자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게 주어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물론 여러분은 고든 칼리지에서 이미 이 말을 주입받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글썄요, 물리학은 아니더라도 [농담이에요. 데이비드 리 박사에게 물어보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물학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학을 할 수 있나요?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예술을 할 수 있고, 영문학, 영어, 온갖 과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나요?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우리는 모든 진리,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걸음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걸음 원칙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10장 1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시험도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그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 아래서 설 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이것을 한 걸음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고 보안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거기에 있는 이유는, 글썄요, 최고 보안 교도소에 있을 때,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차를 훔친 죄로 거기에 있는 걸까요

? 그들은 괜찮아요. 그들은 어쨌든 거기에 있고, 살인죄로 거기에 있어요. 강간죄로 거기에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25, 30년 동안 거기에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살인범이고 강간범이에요. 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제 아내가 말했듯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신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인생에서 큰 실수를 했지만 "신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게 한 걸음 원칙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핫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걸음만 가면 얼굴을 땅에 박고 엎어질 수 있어요. 한 걸음만 가면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만함으로 이어지고, 교만함과 오만함은 교만함입니다. 오만함은 큰 문제입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을 여러 면에서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원칙은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 장을 매일 읽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1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 장을 매일, 매 장마다 읽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 중 하나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영적인 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말한다면” 사람과 천사의 혀가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상징이다. 사랑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인내심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인내심, 그는 왜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것은 “사랑은 인내심이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다--내 아이들은, 사실 말했잖아, 나는 두 아들이 있고, 그들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들은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나는 말했다, 글썄, 어쨌든, 이것은 끔찍한 소리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무 나쁘게 들린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그들은 말했다. 왜 엄마는 그렇게 좋은 아내였을까? 그들은 그녀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냥 친절하다. 당신은 친절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사랑은 친절하다. 그것은 큰 일이다. 사랑은 친절하고 당신은 친절을 원한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러움이 생기고 아내는 남편을 질투하고 남편은 아내를 질투합니다. 부러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것처럼 자랑하세요. 결혼 생활에서 누군가가 아내를 폄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내를 폄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지만 최근에 남자가 아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뛰어들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뛰어들어서 말합니다. 제 아내를 보세요. 제 말은, 누군가와 살 때, 저는 진지합니다. 누군가와 살 때, 모든 사람이 결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결점에 집중할 수 있고 당신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말해야 하고, 결혼 생활의 처음 10년 동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과 그런 것들에 대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불안한 사람아, 불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종종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내 결혼 생활을 거의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당신이 이 권력 투쟁을 시작한다면, 당신이 결혼 생활의 권력 투쟁을 시작하면, 당신은 큰 문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구절을 기억한다면, 권력 투쟁을 이기는 방법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권력을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아내를
 꺾아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하는 것은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이렇게 되고
 싶지만, 어떻게 당신을 섬길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음,
 바나나, 우유, 버터. 진지해. 그럼 식료품점에 갈 때, 식료품점에 가기 전에
 그 미친 여자에게 전화해야 할까? 응. 그녀가 필요한 게 뭐냐고 말해. 항상
 바나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아는 것의 일부일
 뿐이야. 그런데, 많은 경우 그녀는 내게 말할 필요조차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가게에 가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사줘. 하지만 그것이... 그런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그게 친절한 거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그들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

그래서 사랑 장,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보셨나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돌아가는 논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들은 당신이 지난 반년 동안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 영망으로 만든 모든 일들을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 큰 사랑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저 일반적인 인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을 진정으로 아끼고, 다른 것들을 아끼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나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어떤 부서에 있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동생 댄 다코를 사랑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당신은 그냥 변태적이고 우리 문화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죠. 아니, 진지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 부서의 사람들, 그린 박사님, 여러분은 그린 박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은퇴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정말 존경해요. 그는 저에게 일종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월슨 박사님과 함께 일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월슨의 문제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나열할 때, 당신은 모든 잘못과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데, 나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겹죠. 하지만 어쨌든, 조쉬,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에게 말하지 마. 네가 지금 이 수업에 있다는 걸 기억해. 하지만 어쨌든, 아니, 월슨 박사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월슨 박사는 놀라운 사람이고,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요. 그게 정말 일하기 좋은 곳인가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당신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글썄요, 멋진 곳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랑 장(13)과 부활 장, 15장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비평가들이 성경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영적으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부활하셨는지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 그가 묻히셨다”고 말하면서 “그가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나열하고, 그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500명 이상의 형제 자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500명이요. 500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가짜로 만드는 게 꽤 어렵나요? 제 말은 500명이 한꺼번에 그를 보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본 500명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500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이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말할 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약 성경 수업을 듣고 잠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는 나타났다.” 그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완곡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잠들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까? 죽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한 나에게도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같은 부활 장에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당신은 교회 보육원에서 보육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육원에 이 구절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육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이었지만, 그런데 이 구절은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순식간에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어야 하느니라. 오, 사망이여.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죽음을 경험했느냐?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지만 바울은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부활이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제 아버지가 채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을 거예요.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모르핀을 줘야 했어요. 저는 모르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당신이 의사라고 하면서 제 어머니를 믿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모르핀을 주면 어머니가 믿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버지께 모르핀을 주게 되었어요.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몇 가지 실수를 했고 모르핀을 주었어요. 모르핀을 줄 때 문제가 되나요? 잘못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뭘 하는지 몰랐고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같은 꿈을 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암으로,
 책장암이었어요. 그날 밤, 8개월 동안 매일 밤, 나는 그날 밤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8개월 동안 매일 밤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해 8월, 갑자기 나는 그의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다시 죽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에 부분적으로 기여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랬어요. 제가 엉망진창이었는데 8월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힐데브란트,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데 8개월이 걸렸어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일어난 일은 제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활이에요.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시스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예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죽은 자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히 재결합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재결합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인가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은 나빠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그냥 우리가 부정적인가요? 답은 '아니요'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희망적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12명에게 보였고 베드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 번에 500명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세요.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여전히 육체적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보고 그것에 참여할 때 가장 놀라운 희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희망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입니다.

역사 속 이야기의 연결. 저는 이걸 많이 발전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더니즘에서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것과 같았지만 종교는 이야기이고 이야기는 허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두 허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을 흉내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영적인 부활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부활이었을 뿐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여러분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이상 사실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 이야기이고 저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답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진실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무덤 너머에 있는 희망일 뿐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좋아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음, 우리는 죽는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좋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떠맡을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떠맡고 죽음을 이깁니다. 그는 죽음을 이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레이 커즈와일이 있고 그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이점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약을 먹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500년이나 600년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지하게, 그들은 이 모든 유전적 문제를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물어야 할 또 다른 질문은 500년까지 살고 싶은가입니다. 네, 어쨌든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 봅시다. 몸은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적 몸의 신성함에 대한 아름다운 구절, 우리가 몸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빨리 다루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꽤 빨리 다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고, 그가 쓴 다른 편지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사실 2장 4절입니다. 그는 "나는 큰 근심과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눈물 편지"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이 눈물 편지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는 "나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를 너희에게 알리려고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에서 그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후회하였지만. 내 편지가 너희를 아프게 하였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잠깐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회개로 이끈 정말 가혹한 편지를 썼다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눈물 편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눈물 편지”라고 불리는 분실된 편지일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는 그들에게 정말 가혹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는 분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편지를 많이 썼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눈물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생각인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바울이 정말 심도 있게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장에서 13장이 기본적으로 이 “눈물 편지”이고 이 눈물 편지가

고린도후서와 함께 넣거나 첨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합쳐지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후반부가 “눈물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잃어버린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실제로 아버지의 아내와 잤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대부분이 그에게 가한 형벌은 그에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사람을 꾸짖었고 바울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와 잤습니다. 바울은 그 남자들을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회개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충분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이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광의 무게, 새로운 영광의 주제 속의 옛 영광. 여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화해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과 즉시 화해합니까? 저는 화해와 용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니요, 저는 누군가를 즉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까? 화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 저는 친구의 이름을 여기에 적었고 그가 한 일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에는 15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로서 다시 화해하기 전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지만 화해에는 많은 신뢰와 해결해야 할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용서보다 더 복잡합니다. 용서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화해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해는 완전히 다른 작업입니다. 이제 이 영광과 옛 영광을 비교해보세요. 3장 17절을 살펴보세요. "이제 주님은 영이시요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얼굴에 베일을 두르지 아니한 채로 주님의 영광을 다 반사하느니라." 여기서 그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굴에 베일을 두르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누구 생각 있으신가요? 네, 누군가가 바로 말한 걸 봤습니다. 모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든 백성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뿔이 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지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뿔을 달고 하더군요. 일종의 오역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했는데, 그들은

이 뿔로 오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오렌지색을 칠했습니다. 어쨌든 모세, 그의 얼굴이 보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메인에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얼굴을 가렸습니다. 무디.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있었는데 설교할 때 얼굴을 벗었다가 다시 입었습니다. 메인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핸드kerchief 무디]. 하지만 여기서 그는 "얼굴에 베일을 두르지 않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점점 더 큰 영광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고, 당신은 돌아와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영광의 무게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광의 무게"라고 말할 때, 누군가 책을 촉발시킨 적이 있나요? CS 루이스를 쓴 작가?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순수 기독교. 하지만 그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습니다. 매우 얇은 책이지만,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한 영광의 무게는 "비록 겉으로는 쇠약해지지만, 속은 날마다 우리의 빛을 위하여 새로워지고, 잠깐의 환난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니, 더욱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에는 우리가 겪는 온갖 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구덩이입니다. 나쁜 일들이 있고, 우리는 삶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영광의 무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루이스가 묘사한 것처럼 영광의 무게는 진흙 항아리와 영광 속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진흙 항아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흙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진흙 항아리는 우리의 살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진흙 항아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 항아리"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진흙 항아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진흙 항아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뛰어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진흙 항아리. 아름다운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지만 아직은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 항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빛날까요? 하지만 지금은, 하지만 지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진흙 항아리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몇 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정말 핵심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변형이나 변화의 일부입니다. 한편 바울은 5장 2절에서 “그 사이에 우리는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거처로 입기를 사모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는 결국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거처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천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막에 있는 동안”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천막에 있는 동안, 즉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자라났고,” 우리의 몸이 바르게 될 날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장 10절에서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는 각자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선하든 악하든 마땅히 받을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선하든 악하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바로 언급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삶에서 행한 일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말했고, 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의 인생만이 곧 지나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동의합니다. “한 번의 인생만이 곧 지나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이 남을 것이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당신이 깨어나서, 당신은 다섯 살이고, 그리고 나서 당신은 떠나고 다시 눈을 깜빡거리고 갑자기 당신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눈을 깜빡거리고 갑자기 당신은 결혼합니다. 당신은 다시 눈을 깜빡거리고, 당신은 아이를 가지고 있고 다시 눈을 깜빡거립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눈을 깜빡거립니다. 당신은 백 살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해결책은 무엇이였을까요? 깜빡거리지 마세요. 깜빡거리지 마세요. 컨트리 송이에요. 여러분이 클래식과 좋은 음악을 다 듣는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컨트리 음악의 일종이지만, 요점은, 요점은, 그 사람이 말했듯이, 눈을 깜빡거리면 갑자기 25살이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있나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린 시절은 어디로 갔지?라고 말하곤 하죠. 저는 지금 대학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이 일어나고 눈을 깜빡거리면 갑자기 대학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시 눈을 깜빡일 거예요. 35살이 될 거예요. 늙었죠. 그러면 다시 눈을 찔러볼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온갖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00%를 다해 하세요. 그러니 진흙 항아리. 투명성. 바울은 "우리는 고린도인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말했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애정을 감추지 않지만, 여러분은 바울에게서 애정을 감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투명했지만, 그들은 투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것을 말하고 나서 이것을 닫겠습니다.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여기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비기독교인 여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비기독교인 남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메지
말라. 실제로 맥락은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메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메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와 나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소는 나귀가 따라잡을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것이고, 그
자체의 무게로 끌어당깁니다.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메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사업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는 공인회계사이고, 어떤
남자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아내를 무시했고, 제 아내는
그녀의 상사였고, 그 상사는 꽤...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했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 아내는 완벽주의자라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제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이 사업은
반반씩 나눠 가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고요. 제 아내는 그 남자와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없었을까요? 두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세금을 처리할 때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쉬, 그냥

해내서 몇 가지 요령을 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것은, 질문, 당신은 동등한 멩에를 메고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윤리적 관행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난한 이유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합니까? 답은,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치렀지만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한 중요한 일,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요점은 그가 돈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고 바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돈이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은 돈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은 정말 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는 와서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 책에서 빛의 천사로 묘사된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기꾼이로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상할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당신에게 올 때 어둠 속에서 나오는 어두운 뿔 달린 인물이 아닐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제 사탄은 빛의 천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가 매우 기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탄은 매우, 매우 좋은 것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바라건대 그것이 대학에서 여기서 배우는 것 중 일부입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합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 자랑합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얼마나 많이 거의 죽을 뻔했는지, 얼마나 많이 바다에 던져졌는지에 대해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 자랑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힘을 내세울 수 있도록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맞은 모든 시간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불평합니다. 바울은 세 번 기도하는데, 저는 이것이 치유에 정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마도 그의 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 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십시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쉬자. 화요일에 만나요. 조심하세요. 저는 신약 역사, 문학, 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테드 힐드브란트 박사입니다. 고린도서 2부에 대한 26번째 강의입니다.